



서울대 시카고 동문들의 특별한 만남, '골든 클럽' 활성화 비결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끈끈한 유대감, 격변의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 경험한 세대의 공감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쌓은 특별한 경험들이 어우러져 '골든 클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이 클럽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회원들에게 특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골든 클럽'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회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는다.

첫째, 강력한 유대감의 원천, '서울대 학연': 서울대학교라는 공통분모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회원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동문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

둘째, 역사의 파도를 함께 넘은 세대의 공감대: 독립, 전쟁, 경제 성장,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격변의 시대를 함께 헤쳐온 경험은 회원들 간의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셋째, 미국 사회에서 쌓은 특별한 경험의 공유: 이민, 유학 등 미국 사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특히 이민자로서 겪는 독특한 경험은 회원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초강대국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험은 회원들에게 특별한 공감대를 선사한다.

넷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조화로운 공감대: 한국적 전통과 미국 문화의 조화로운 경험은 독특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대는 클럽 활동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더하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문화적 정체성: 나이가 들수록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동문 모임을 더욱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며, 회원들에게 즐거운 일상을 선사한다.

여섯째, 끊임없는 지적 자극: 강연, 토론, 환담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은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클럽 활동의 질을 높이고 회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곱째, 활발한 온라인 소통: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발한 소통은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이는 클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골든 클럽'의 한 회원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클럽'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클럽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글 제공: 한경진 동문) (상대 58, 2024 골든클럽 회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2025 년의 첫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야유회 및 골프대회 등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욱 많은 동문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라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더욱 단단한 동문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및 개편된 웹사이트를 통해 골든 클럽 및 관악 클럽의 소식도 전해드리고, 동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동창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리라고 생각하며, 좋은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임원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기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곧 있을 행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장 정성일 (공대 86) 올림.

2023 - 2025 선출 이사 :

구경희(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용환(공),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훈태(사회), 박영규(농),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안창혁(사), 왕진한(공), 유희두(사),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영우(문), 이정숙(간), 이창호(공), 장윤일(공), 지우영(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2024 - 2026 선출 이사 :

강영국(수), 광영로(수),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유기정(간), 이승자(사),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형원(약),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의일(공), 홍승우(사회), 홍청일(약),

2025 - 2027 선출 이사 :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연화(음), 김영준(문),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신순천(원), 연경자(약), 이경미(미),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정일(농), 장영수(공), 정호(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재은(의),

2025 년도 임원진: 회장 정성일(공대 86), 수석부회장 이동균(공대 75), 부회장 이준수(공대 76), 김훈태 (사회 84), 총무 봉윤식 (사회대 96) 재무 이태호 (공대 87), 섭외/홍보 황찬주 (인문대 84), News Letter 이준수(공대 76), 봉윤식 (사회 96) Web Master 김수현 (생활대 98), 황찬주 (인문대 84), 골프 소진문 (치대 58), 김훈태(사회 84), 사진 김수현 (생활대 98), 홍청일 (약대 57), 김동희(공대 66), 소진문 (치대 58) 특별간사 황찬주 (인문대 84), 이소정 (음대 84), 감사 한재은(의대 59), 김수현 (생활대 98), 동아리모임 음악: 이영우(문리대 66), 댄스: 황찬주(인문대 84), 독서: 박종희(의대 69), 수영: 김동엽 (사대 86), 고문 역대회장



조규승, 한경진, 이상강 회장, 소진문 동문

소진문 동문(치대 58E)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서울대 동문들은 구심점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1990 년 1 월,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통합된 조직의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가 논의 되었으며 1990 년 10 월,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24 년 8 월 28 일, 미주 총동창회 이상강 회장 일행은 시카고를 방문하여 총동창회 설립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 글 제공: 소진문 동문) (치대 58E)



1994.12.29.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주총동창회 Certificate

2024 년도가 시작되면서 회장직을 맡을 자원자가 안 나타나 근 20년 이어온 골든클럽이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으나 한경진 동문(상 59)이 자원해서 회장단을 구성하고 위기에 처한 골든클럽을 소생시키고 발전시켜 작년 12월 4일에 100명이 참석한 연말 파티로 24년도 모임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년동안 부회장으로 수고한 안창혁 동문(사 65)이 2025년도 골든클럽을 회장직을 맡고 회장단을 구성해 골든클럽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고할 회장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안창혁(사 65), 부회장: 심태식(문 69), 총무: 이병주(상 74), 재무: 지옥희(간 69), 섭외: 김영원(사 67).

1월 9일에 2025년도 골든 클럽 첫 모임을 BBQ Garden에서 가졌고 71명이 참가했으며 새 임원들의 새해 인사와 회장의 2025년도 골든클럽 운영 방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창혁 회장은 새해 운영 방향으로 70-78학번 동문들 골든 클럽 참여를 적극 권장할 계획을 발표했고 골든클럽 회원 Spouse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회비를 납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생활의 지혜 세미나를 다양한 주제로 열 것을 계획하고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촉구했고 그리고 매년 시행해온 단기/장기 여행은 점점 노후해 가는 회원들의 건강 사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후 노틀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은퇴한 이병주 동문이 "은퇴후 성공적인 투자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들어 첫 세미나를 해 많은 참석한 동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월 모임은 2월 6일 같은 장소에서 모였고 64명이 참석했습니다. 2월 세미나 연사로서 이건정 동문(공 69)이 "남극 기행과 남극 탐험에 얽힌 이야기"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에서 남극 탐험의 역사와 남극의 지형, 남극 기행경로, 준비 과정 등을 아름다운 남극 설경과 각종 펭귄들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발표를 해 모든 듣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었습니다. 남극 기행 발표후 덤으로 최근에 갔다 온 일본 홋카이도에서 찍은 아름다운 겨울 경치들을 비디오로 보여주어 이건정 동문 부부의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즐기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3월 모임에는 장기남 동문(문 62)의 대 수술 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천국을 갔다 온 경험담을 발표하고 안창혁 동문이 근사체험(Near Death Experience)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와 견해에 대해 발표합니다.



▲ 이병주 동문의 세미나 "은퇴후 성공적인 투자방법", 1월 모임에서 2025년도 임원들 소개, 이건정 동문의 "남극 기행과 남극 탐험에 얽힌 이야기" (좌측부터)

세종문화회 (회장: 박계영)(의대 84)는

지난 2월 7일에 세계시조의 날 제정 및 공표식을 갖고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는 한국 정통의 시조가 K-Poem으로 세계에 더욱 알려져 세계의 문학 장르로서 인정 받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2월 7일을 세계시조의 날(World Sijo Poetry Day)로 정하고, 매년 세계에서 시조에 관한 여러 행사들을 할 것을 독려, 후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쁜 소식은 Polaris Trilogy 시집에 실린 한글 시조 9편과 영어 시조 2편(세종문화회가 제출)이 Fire Fly 항공사의 Blue Ghost Moon Lander에 실려 지난 3월 2일 달에 무사히 안착하여, 달에 영구히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한글 자료가 최초로 달에 도착하여 보존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세종문화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달에 간 시조들의 낭송을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SejongCulturalSociety.org) (사진, 글 제공: 박종희 사무총장) (의대 69)



11 편의 시조가 포함된 Polaris Trilogy 시집이 적재된 Blue Ghost 달 착륙선의 달 표면 그림자

2025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24 일(금) 12: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클럽(안창혁) 관악클럽(김수현) 음악동우회(이영우) 수영 (김동엽) 스와재 (황찬주) 낚시 (김동엽) 산행 (봉윤식) 북클럽 (박종희) 시카고 동창회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및 변경 주소등록 
2 월	28 일(금) 위임장(Proxy) 송부 -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 월	16 일(일) 17:00 ~ 2 차 실행임원회의 (이사회 준비) 29 일(토) 13:00 ~ 1 차 이사회, @ Chandler (Schaumburg Golf) (예약 완료)	
5 월	1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야유회 준비) 31 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04 (예약 완료)	
6 월	0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14 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Hilldale GC) 20-22 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 회의 - St Paul Hotel, Minnesota	
7 월	11 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완료	
8 월	30 일(토) 장학생 접수 완료 14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6 일(토) 12:00 추계 골프대회(Hilldale GC) 21 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28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2 차 이사회준비)	
10 월	12(일) 16:00 ~ 2 차 이사회 - 한인 문화원/ At Chandler (Schaumburg Golf)	
11 월	30 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14 일(일) 16:00 ~ 총회 및 송년파티 - 한인 문화원/ At Chandler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4 년 이사회비 납부 (65 명)

강영국(수), 곽영로(수), 구경희(의),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준(문),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주(문), 김용환(공), 김학수(공),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인숙(간),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유기정(간), 유회두(사),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승자(사), 이영우(문), 이용락(공),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영수(공), 장윤일(공),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봉완(법), 조중행(의),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홍승우(사회),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4 년 동창회비 납부 (83 명)

강영국(수), 곽영로(수), 고병철(법), 구광덕(음), 구경희(의), 김미숙(음), 김길중(의), 김동희(공),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원(사), 김영준(문),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용환(공), 김학수(공), 김현희(간), 김호범(상), 김훈태(사회), 노영일(의), 박동수(문), 박명기(문), 박숙(의), 박연희(보), 박영준(문), 박장열(공), 박정삼(공), 박종희(의),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소진문(치), 송재현(의), 신석균(문), 신순천(원), 안인숙(간), 안창혁(사), 연경자(약), 왕진한(공), 유기정(간), 유회두(사), 윤봉수(간), 원인숙(간), 이건정(공), 이경미(미),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소정(음), 이소희(간), 이승자(사), 이영우(문), 이용락(공), 이은영(음), 이정민(음),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장기남(문), 장영수(공), 장윤일(공),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봉완(법), 조중행(의), 지옥희(간),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청일(약),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치룡(문), 황찬주(인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4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 구경희(\$1,000), 김윤태(\$300), 정승규 (\$500), 최희수(\$70), 한의일(\$1,000), 유정호(유기천재단: \$1,000)
 일반경비 지원 : 고병철(\$30), 김길중(\$70), 김영호(\$70), 김윤태(\$230), 김재환(\$230), 김학수(\$230), 노영일(\$230), 백준철(\$230), 신석균(\$230), 이종일(\$230), 장윤일 (\$2,000), 조규승(\$5,000), 한경진(\$1,000), 미주총동창회(\$6,500)

부고: 2025. 1. 21. 최의필 박사님(의대 53E) 소천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Area, Inc.

2215 Fox Boro Ln, Naperville, IL 60564; (301) 395-7285; Website: www.snuachicago.org, email: snuachicago@gmail.com